

게일의 미출판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 고찰*

-번역의 양상을 중심으로

강혜정**

〈차례〉

1. 서론
2. 출판된 게일 영역 시조의 특성
3. 미출판 『朝鮮筆景(Pen-Pictures of Old Korea)』 소재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
4. 미출판 『日誌(The Diary)』 소재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1863-1937)의 미출판 영역 시조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게일의 영역 시조사 속에 자리매김하여 미출판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토마스 피셔 희귀본 장서실'에는 출판되지 않은 한국 고전에 대한 게일의 번역물이 존재하는데, 『조선 필경(Pen-Pictures of Old Korea)』이라는 미간행 서적과 『일지(The Diary)』라는 필사본 속에 영역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게일은 40년간 한국에 머물며 30년에 걸쳐 영역 시조를 발표하였는데, 출판된 시기에 따라 번역의 양상이나 목적이 달랐다. 즉, 1895년부터 1898년 사이에 발표된 1차 번역(*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Sketches*)에서는 수용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이다가, 1922년에 발표된 2차 번역(*The Korea Bookman*)에서는 원천

* 이 논문은 2022년 5월 14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문학 중심적 태도로 바뀌었고,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발표된 3차 번역(*The Korea Mission Field*)에서는 중간 혼합적 태도를 보였다.

1912년에 작성되었으나 출판되지 못한 『조선필경』은 번역의 양상이나 시조에 대한 인식 태도로 볼 때 1차 번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조선필경』은 게일의 1차 번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조선필경』까지 포함한 1차 번역에는 영문 잡지, 출판된 단행본, 미출판 단행본 등 영역 시조를 수록한 매체의 성격이 다양하고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도 상당히 길지만, 원천문학인 시조로서의 특성보다는 영시로서의 운율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기에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조선필경』의 발견으로 1895년부터 시작된 게일의 한국 시가 번역이 1910년대 초반에 이르도록 서구 문학 중심적 태도로 일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일지』의 경우 선행 연구는 2차 번역 즉, *The Korea Bookman*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번역은 원천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두 번역 사이에는 변별되는 지점도 있었다. 이 변별되는 것들을 통해, 본고에서는 *The Korea Bookman*이 『일지』보다 먼저 작성되었으며, 『일지』는 *The Korea Bookman*의 실험적 번역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일지』의 발견으로 게일이 *The Korea Bookman*에서 강조했던 바, 시조로 대표된 조선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서구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확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영역 시조, 제임스 게일, 조선 필경, 일지, 남훈태평가, 코리언 리포지터리, 코리아 북맨, 코리아 미션 필드

1. 서론

본고는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1863-1937)의 미출판 영

역 시조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게일의 영역 시조사 속에 자리매김하여 미출판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토마스 피셔 회기본 장서실’에는 게일의 유물이 24개의 상자로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 속에는 출판되지 않은 한국 고전에 대한 게일의 번역물이 존재하는데, 『朝鮮筆景(Pen-Pictures of Old Korea)』(이하, 『조선필경』으로 지칭)이라는 미간행 서적과 『日誌(The Diary)』(이하, 『일지』로 지칭)속에 영역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영문 잡지 속에 존재하는 게일의 영역 시조에 대한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되었다.¹⁾ 여기서는 게일이 발표한 영역 시조를 발표 시기에 따라 1차 번역, 2차 번역, 3차 번역으로 나누고 각 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을 밝혔다. 게일의 영역 시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40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시조’를 여러 차례 번역하였는데, 번역 시기에 따라 번역시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처음 낯선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 했던 번역의 양상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난 후에 행한 번역의 양상 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조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게일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출판 영역 시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도 한국의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게일의 다채로운 시선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선필경』 소재 게일 영역 시조의 창작 연원과 그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제출되었다.²⁾ 여기서는 『조선필경』이라는 미간행 서적의 특

1) 강해정,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14, 33~94쪽.

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 책의 1장에 있는 영역 시조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을 통해 『조선필경』 소개 영역 시조의 창작 연원이 1차 번역인 *The Korean Repository*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수록된 영역 시조의 대략적인 특성이 드러났다. 다만, 여기에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2015년에 『조선필경』과 『일지』의 원문을 모두 공개하여 후대의 연구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였다.³⁾ 그리고 이 두 자료를 포함한 게일의 영역 시조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도 수행하였다.⁴⁾ 이를 통해 게일의 미간행 영역 시조의 전모가 학계에 소개되었고, 『조선필경』과 『일지』의 중요한 특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게일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의 성격과 작성 시기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논의를 심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게일 미출판 영역 시조의 계보를 살피기 위해 우선 출판된 게일 영역 시조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핀 후, 『조선필경』과 『일지』에 수록된 영역 시조에서 보이는 번역의 양상을 검토하여 미출판 영역 시조를 게일의 영역 시조사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출판된 게일 영역 시조의 특성

1888년 26세의 나이에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1927년 65세까지 40년을

2) 이상현·이진숙, 「『조선필경』 소개 게일 영역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심」,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화회, 2014.

3) 이상현·윤설희·이진숙, 「『게일유고』 소개 한국고전 번역물(1)-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4) 이상현·윤설희·이진숙, 「시가어의 재판과정과 번역-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와 시조 담론의 계보학」,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던 제임스 게일은 1895년부터 1927년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영역 시조를 발표하였다. 40년을 조선에 머물며, 30년간 3차에 걸쳐 시조를 영역한 것이다. 이전에 발표했던 것을 일부 재수록하기도 하였지만, 각 발표 시기에 따라 시조를 소개하는 맥락이나 번역의 목적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번역시의 양상도 바뀌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1895년-1898년 사이에 *The Korean Repository*에 발표한 18수를 1차 번역으로, 1922년 6월 *The Korea Bookman*에 발표한 9수를 2차 번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4년 7월부터 1927년 9월까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발표한 시조 15수를 3차 번역이라고 명명하였다.⁵⁾

1차 시조 번역은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로 알려진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18수의 작품과 이 중 일부를 재수록한 단행본 *Korean Sketches* (1898)에 있는 작품을 말한다. 원전은 『남훈태평가』로 추정되며,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여,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1차 번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원문에 없는 제목을 붙이고, 주로 6행시 형태로 번역하면서, 규칙적인 미터(meter)와 각운을 넣어 운율을 살렸다는 것이다. 즉, 영어권 수용자가 英詩로 감상하는 데 어색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1차 번역에서 게일은 원천 문학인 시조의 특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수용자들이 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데 주안점을 둔 ‘수용문학 중심적 접근 태도’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시조 번역은 1922년 6월 영문 잡지 *The Korea Bookman*에 발표한 것이다. “Korean Song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게일은 영역 시조의 원전이 『남훈태평가』임을 밝히고, 이 책의 입수 경위 및 특성을 설명한 후 9편의 시조를 소개하고 있다.⁶⁾ 처음 4수는 가집 맨 앞에 수록된 1번부터

5) 이하 소개되는 내용은 강혜정(2014), 앞의 논문, 33~94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6) 1891년 양기탁과 그의 부친 양시영은 게일의 『한영사전』(1897 요코하마 간행) 작

4번까지의 작품이고, 뒤의 5수는 이 가집에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선별하였다. 즉, 여기 소개된 작품들은 작품 자체에 주목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훈태평가』라는 가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남훈태평가』의 문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번역서는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으며, 나아가 시조의 형식까지도 재현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게일은 시조의 3장 구조를 설명한 다음, 신출 번역시는 3행시로 소개하였다.

1차 번역이 낯선 조선의 노래를 번역자의 문화적 전통에 익숙한 형태로 변형시켜 제시한 것이었다면, 2차 번역은 낯선 것을 낯선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번역사에서 재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게일이 한국에 체류했던 시간이 길어지며, 역사적 전환기를 겪고 한국고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 『남훈태평가』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과거 한국의 고전 중 하나이며, 한국인의 얼이 담긴 소중한 자료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차 시조 번역은 2차 번역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게일은 1924년 7월부터 1927년 9월까지 영문 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38회에 걸쳐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 관한 글을 연재하였다.⁷⁾ 본문에서 언급하는 특정 사실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조를 인용하였

업을 도왔다. 이 무렵 양기탁은 부친의 친구가 소유하고 있던 목판으로 찍어낸 『남훈태평가』를 게일에게 주었다. 게일은 이 책을 원문으로 삼아 시조를 영역하였다.

7) 이 글을 모아 1928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History of the Korean People*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였고, 1972년 러트(Richard Rutt)가 여기에 게일의 일대기와 참고 문헌 목록을 덧붙여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韓國民族史*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하였다.

고, 신라나 조선 시대의 노래를 언급하면서 시조 15수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번역시의 행수가 다양한데, 1차 번역처럼 영시의 운율을 살리지 않았고, 2차 번역처럼 시조의 형식을 살리지도 않았다. 1차 번역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면서 영시의 운율을 살렸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과도한 시도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2차 번역에서 보이던 3행시의 낮설음도 완화되었다. 즉, 3차 번역은 시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서 무난한 영시로 읽히도록 절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서에 삽입된 시조는 한국인의 풍습과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사료로 활용되었기에 원천문학과 수용자를 모두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3. 미출판 『조선필경』 소재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

1) 1차 번역(*The Korean Repository*)의 집성

『朝鮮筆景 조선필경 PEN-PICTURES OF OLD KOREA』은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 피셔 회귀본 장서실’에 소장된 게일의 유물 중 하나로, 미출판 책자형 자료이다. 게일이 출판을 위해 준비해둔 것인데, 1장 (“Korean Songs and Verses”)에 17수의 영역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미출판 자료이지만 선행 연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⁸⁾

선행연구는 『조선필경』에는 1차 번역에 해당하는 *The Korean Repository*에 발표했던 시조 9수를 재수록하였기에 『조선필경』의 창작 연원은 *The Korean Repository*이며, 재번역을 통해 번역 형식이 달라진 경우가 없기에 그가 번역한 “영역 시조의 집성이란 측면이 강하다”고 보았

8) 이상현·이진숙, 「『조선필경』 소재 게일 영역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심」, 『우리문화연구』 44, 우리문화회, 2014. 원문은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644~654쪽에 수록되어 있다.

다.9) 절반이 넘는 9수를 1차 번역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 번역 외에 『조선필경』에서 처음 선보인 8편의 번역시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 mountain village, night grows late ,	산촌에 밤은 깊어가는데
Dogs in the distant bay	멀리 바닷가의 개들
I peek out through the bamboo gate	내가 죽문의 틈으로 엿보니
The sky is cold , the moon is gray .	하늘은 차고, 달은 회색빛
These dogs : What can such barking mean ,	개들아, 왜 그리 짖는가
When nothing but the moon is seen ?	보이는 것은 달밖에 없는데

『조선필경』에 5번째로 수록된 번역시이다. 『남훈태평가』 8번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10) 초, 중, 종장을 각 2행으로 번역하여 6행시로 만들었고, 각 행은 약강 4보격(iambic tetrameter)을 취하고 있으며, 각운도 맞추었다. 1,3행(late, gate)과, 2,4행(bay, gray) 그리고 5,6행(mean, seen)의 말미에 놓인 단어들은 같은 소리를 갖고 있어 낭송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율을 맞추려다 보니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다. 번역의 과정에서 원문에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변형되었다. 인용한 시의 경우, 원문은 초장에서 “기가 지저귐다”고 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번역시에서는 이 부분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장에서 원문의 화자는 “시비(사립문)를 열고” 내다 보고 있지만, 번역시에서는 “죽문(대나무로 만든 문)의 틈으로 엿보고” 있는 것으로 바

9) 이상현·이진숙(2014), 위의 논문, 230쪽.

10)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 기가 지저귐다/시비를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달이로다/저기야 공산 잠긴 달 보고 지저 무삼. 『남태』 8.

꺼었다. 종장에서도 원문은 ‘공산 잠긴 달’이라고 하여 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달을 그리고 있지만, 번역시에서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달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회화적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의 시는 규칙적인 미터와 압운을 통해 한 편의 영시로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원작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신출작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게일의 1차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1912년에 작성된 『조선필경』은 게일의 1차 번역(1895-1898)과 15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번역의 양상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필경』은 1차 번역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선필경』에 드러난 시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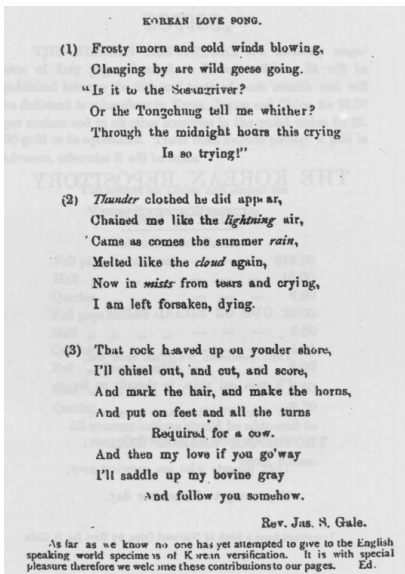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는 1차 번역 *The Korean Repository*에 비해 『조선필경』에 “변모된 측면이 개입되어”¹¹⁾ 있다고 하며, 그것은 시조에 대한 ‘지칭’이 바뀐 점이라고 하였다. 이는 게일의 시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좀 더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The Korean Repository*가 시조를 “Ode 혹은 Song”으로 묶었던 데 비해, 『조선필경』은 “문자문화의 면모를 구비한 ‘Korean Songs and Verses’라는 제명”¹²⁾을 선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어져 “노래를 지칭하는 ‘Songs’뿐만 아니라 시, 운문을 지칭하는 ‘Verses’라는 영어 어휘를 사용하여 장 제목을 만들었다는 큰 변별점을 보여주는 셈”¹³⁾이라고 하고, 이러한 장 제목을 단 것은 “*The*

11) 이상현·이진숙(2014), 앞의 논문, 230쪽.

12) 이상현·이진숙(2014), 앞의 논문, 230쪽.

13) 이상현·윤설희·이진숙, 「시가어의 재편과정과 번역-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와 시

*Korean Repository*에서와 달리, 『조선필경』에서 게일이 시조를 구술 문화적인 노랫말이 아닌 문자문화의 영향권 내에 놓인, 문학 텍스트로 상대적으로 더욱 근접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¹⁴⁾하였다. 즉, 1



1895.4. *The Korean Repository*

차 번역인 *The Korean Repository*에서는 시조를 노래(구술 문화)로 인식하였지만, 『조선필경』에 와서는 문학 텍스트에 가깝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게일의 영역 시조는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형식은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시조에 대한 게일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게일에게 있어 시조는 일관되게 ‘노래(Songs)’였다. 다만 영역된 시조를 지칭할 때는 Song과 Verse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1895년 4월, 처음으로 영역 시조를 소개할 때, 게일은

이를 ‘ODE’ 혹은 ‘SONG’이라고 칭했다. 옆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단에 ‘KOREAN LOVE SONG’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세 편의 시조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1차 번역 당시에도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태껏 누구도 영어권 세계에 한국시(Korean versification)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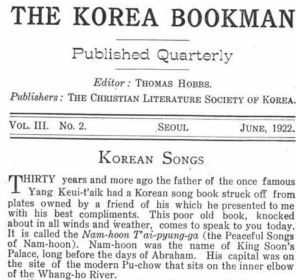
조 담론의 계보학,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67쪽.

14)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2015), 위의 논문, 569쪽.

여(여기서 시조를 처음 소개하는 것)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환영하는 바이다.¹⁵⁾

1895년, 게일이 처음 영역 시조를 발표할 때, 제목에서는 ‘Song’으로 지칭하였지만, 각주에서는 ‘한국시(Korean versif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versification’은 ‘verse(운문)’에서 파생된 단어로 원래 운문이 아니던 것을 운문으로 바꾼 것이라는 뜻이 있다.¹⁶⁾ 즉 1차 번역 당시 게일은 시조 자체는 노래이지만, 번역시는 운문의 형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필경』보다 10년 뒤에 발표된 2차 번역(*The Korea Bookman*)에서도 확인된다. 2차 번역은 게일이 시조를 영역할 때 원문으로 삼았던 『남훈태평가』라는 가집을 소개하기 위한 글이었는데 게일은 이 기사의 제목을 “Korean Songs”라고 하여 시조가 노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작품을 해설하는 중에는 ‘verse’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였다.¹⁷⁾ 이를 통해 볼 때, 1922년, 2차 번역 당시에도 게일은 ‘시조’는 한국인



1922.6. *The Korea Bookman*

15) As far as we know none has yet attempted to give to the English speaking world specimens of Korean versification. It is with special pleasure therefore we welcome these contributions to our pages. Ed. (1895, 4, *The Korean Repository*)

16) 1. the making of verse 2. metrical structure, a particular metrical verse 3. a version in verse of something originally in prose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versification>)

17) In such a verse as this we have neither rhyme nor assonance, but we have a regular succession of the ups and downs of intonation, while the end, unfinished, unexpressed, leaves the thought as though hanging in mid air. This is a favorite form of Korean composition. J. S. Gale, "Korean Songs",

의 ‘노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일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발표했던 3차 번역(*The Korea Mission Field*)에서도 여전히 시조는 ‘Song’으로 지칭되고 있다. 옆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25년 발표한 기사에서 게일은 세 편의 영역 시조를 소개하면서 소제목을

MISSION FIELD

What did they sing in those far distant days? Let me suggest a sample as I seek through the old records:
 Thou rapid stream that flows out the mountain gorge,
 Pray don't be glad swift-winged to fly away;
 When once you fall into the deep blue sea, there will be no return;
 Let's wait before we go.

1925.6. *The Korea Mission field*

‘Korean Songs’라고 붙였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행본에는 이 소제목이 삭제되었지만, 게일이 처음 발표한 잡지에는 분명하게 남아 있다.¹⁸⁾ 즉, 게일의 마지막 번역에 해당하는 3차 번역 당시에도 게일에게 있어 번역 대상인 시조는 일관되게 노랫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일은 1차 번역 시기부터 3차 번역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조를 한국인의 ‘노래(Song)’라고 소개하였다. 다만, 그 노랫말에 자신이 영시의 외피를 입힘으로써 ‘운문(Verses)’¹⁹⁾으로 만들었기에 ‘Song’과 ‘Verse’라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필경』에서 “Korean Songs and Verses”라고 제목을 붙인 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1차 번역과의 ‘변별성’을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선필경』에 수록된 영역 시조는 번역의 양상이나 그에 담긴 번역의 태도, 그리고 시조에 대한 인식 등에서 볼 때, 게일의 1차 번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 역시 1차 번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p14.

18) 이 소제목은 1972년 러트가 단행본으로 발간한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에는 삭제되었다.

19) ‘운문(verse)’이란 흔히 ‘시(poetry)’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주로 각운이나 일정한 미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글의 형태를 말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verse는 prose와 상대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는 운문이지만, 산문시나 자유시는 운문에 속하지 않는다.

4. 미출판 『日誌(Diary)』 소재 영역 시조의 계보학적 위상

1) *The Korea Bookman*과 『일지』, 선후 관계 검토의 필요성
 토론토 대학의 ‘토마스 피셔 회귀본 장서실’에서는 『조선필경』 외에 필사본 『日誌(Diary)』가 있는데, 여기에도 영역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총 18권에 이르는 『일지』는 게일의 사적인 기록물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헌에 대한 번역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7권과 21권에 영역 시조가 포함되어 있다.²⁰⁾ 필사본이라 게일의 초역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 자료를 처음 검토한 연구자는 초역보다 진전된 형태로 여기고, 차후에 활자로 간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정 및 재번역의 과정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일지』에는 “Korean Ancient Songs”라는 제명 아래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가 가집의 순서대로 번역되어 있다. 『일지』 7권에 1번부터 24번까지의 영역 시조가, 그리고 『일지』 21권에 25번부터 42번까지의 시조가 영역되어 있다.²²⁾ 비록 출간되지도 않았고, 가집을 완역한 것도 아니지만, 『일지』는 『남훈태평가』라는 하나의 가집을 원전으로 삼고 42수나 번역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여기에는 날짜가 없어서 언제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20)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시가어의 재판과정과 번역-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와 시조담론의 계보학」,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78~579쪽.

21) Ross King, “James Scarth Gale, Korean Literature in Hanmun and Korean Books”,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237~240쪽.

22) 원문은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655~664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쉬움으로 남는다. 선행연구는 『일지』 전후에 수록된 다른 기록들을 감안하여 1921-192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일지』 와 기존의 2차 번역 *The Korea Bookman*(1922.6)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그 선후 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일지』 와 *The Korea Bookman*은 서로 중첩되는 관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²³⁾ 두 번역 간에 주목할 만한 유사성이 발견되고, 두 개의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도 매우 근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 번역은 변별되는 측면도 있기에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2차 번역 “*The Korea Bookman*과 『일지』 를 중첩되어 있다고 본 중요한 이유는 “『남훈태평가』 라는 작품의 출처를 밝히고 원전 소재 작품 순서대로 시조를 영역”했다는 점과 “시조작품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해야 할 고사나 전고가 보이면 그와 관련한 논평을 병기해 놓고 있다는 점”이었다.²⁴⁾ 즉 편제 방식과 한문 전고에 대한 논평을 근거로 삼았다.

‘편제 방식’은 두 번역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일지』 는 『남훈태평가』 의 수록 순서대로 1번부터 42번까지 번역하였고, *The Korea Bookman*은 서두에 『남훈태평가』 수록 1번부터 4번까지를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게일의 이전 번역, 즉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Sketches*, 그리고 『조선필경』 에 수록된 1차 번역에서 한결같이 주제별로 시조를 선별하여 소개한 방식과 비교할 때 이러한 편제 방식은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볼 때, 『일지』 와 *The Korea Bookman*의 편제 방식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지』 의 42수가 일관되게 가집의 편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The*

23)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639쪽.

24)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시가어의 재판과정과 번역-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와 시조 담론의 계보학」,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83쪽.

*Korea Bookman*의 경우, 5번부터 9번까지의 5수는 다른 편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훈태평가』 12번, 61번, 30번, 25번, 68번에 해당하는 작품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 가집에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1차 번역의 주제별 분류 방식에 더 가깝다. 특히, 61번 작품이 30번이나 25번보다 앞에 놓인 것으로 볼 때, 가집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The Korea Bookman*과 『일지』는 유사한 편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거론한 ‘한문 전고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다는 것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 Bookman*에서 『남훈태평가』 4번 작품²⁵⁾을 영역한 다음 노랫말에 등장하는 ‘왕상²⁶⁾, 맹종, 노래자, 증자’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일지』에서 강태공(9번)²⁷⁾이나 굴원(10번)과 같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 역시 1차 번역에서는 보이지 않던 서술 방식이라 두 번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The Korea Bookman*에는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논평과 시조 형식에 대한 논평 등 두 개의 논평만 존재하지만, 『일지』에서는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 소상강, 동정호(12번)와 같은 지명이나, 청명(13번)과 같은 절기 소개도 이어지고 심지어 단순한 설명을 넘어 작품 해석에 관한 계일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

25) 왕상의 니어 낙고 밍동의 죽순 격거/감든 머리 빅발토록 노리즈의 옷슬 입고/일상에 양지 성효를 증즈 갖치 『남태』 #4

26) Wang(265 A.D.) was a most noted Chinese saint of filial piety. For his step-mother's sake he lay down on the ice, melted it and caught the carp to save her soul.

27) Kang-tai was the wise man whom King Moon found fishing and made his minister. King moon was a founder of the Choo Dynasty of Chinese and one of her greatest master saints(1120 B.C.)

내기도 하는 등, 논평의 개수도 많고, 그 성격도 매우 다채롭다.

15번 작품 : 자신의 위험, 오류에 대해 언급하는 여인의 노래.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녀가 받는 비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옛 동양 사회에서 여인에게 있어 전부였던 자신의 명성과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²⁸⁾

16번 작품 : 이 작품은 한국의 노래 중 슬픈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삶의 원천이 소진된다. 그는 서몽고에 있는 기산의 꼭대기에서 신선처럼 살 것이다.²⁹⁾

17번 작품 : 이것은 국가와 관련된 노래로, 임금이 태평 시대를 깨울까 염려되어 궁에 있는 모든 하급 관리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잠들어 있는 흰 꽃봉오리이다.³⁰⁾

27번 작품 : 이 작품에서의 임은 남편, 친구 혹은 임금일 수 있다.³¹⁾

위에서 예로 든 논평은 인명이나 지명에 대한 설명을 넘어 작품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계열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 해석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평은 한문 전고에 대한 해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지』에는 42개의 작품을 수록하면서 15개의 작품에 논평이 달려 있다.

28) (#15) Note: Woman song that speaks her dangers, her wrongs. She is seen speaking to a man and that's her condemnation. She fights as for her life for her good name is all she has was in ancient Asia.

29) (#16) Note: This is a sad note in Korea's songs-Age comes on, the source of life runs out. He would live like the fairies who dwell on Ki-mountain tops of West Mongolia Forever.

30) (#17) Note: This is a national song and means out with all inferior hearts from the palace lest the king be awakened from his reign of peace. He is the white bud who sleeps.

31) (#27) Note: The lord my be, husband, friend or king.

이 중 한문 전고와 관련된 것은 7개이고, 8개는 게일의 주관적 해석이다. *The Korea Bookman*의 경우 9개의 작품을 수록하면서 2개의 작품에 논평을 단 것과 비교하면 『일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평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지』와 *The Korea Bookman*은 1차 번역과는 분명하게 변별되는 두 번역만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공통점의 규모와 빈도, 그리고 그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감지된다. 따라서 이들을 ‘2차 번역’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되, 두 번역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이 선후 관계는 단순히 시간에 따른 줄 세우기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번역의 특성을 통해 게일 영역 시조의 궤적을 밝히는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일지』와 *The Korea Bookman*에 나타난 번역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그 선후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2) *The Korea Bookman*과 『일지』의 선후 관계 : 번역의 양상을 중심으로

1차 번역과 비교할 때 *The Korea Bookman*에 소개된 2차 번역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옮기면서 3행시 형식을 통해 시조의 형식까지 재현했다는 점이다.³²⁾ 1차 번역이 시조의 특성보다는 영시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데 무게 중심을 둔 ‘수용문학 중심적 접근 태도’를 보인 번역이었다면, 2차 번역인 *The Korea Bookman*은 시조의 특성을 살리는 데 무게 중심을 둔 ‘원천 문학 중심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훈태평가』를 차례대로 번역한 4편 중 1번, 2번, 4번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3행시로 번역되었고

32) 강혜정(2014), 앞의 논문, 70~76쪽.

영시의 운문성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3번 번역만 6행시라는 사실이다. 반면 『일지』에서는 이 작품을 포함하여 1번부터 4번까지의 작품이 모두 4행시로 번역되었다. 3번 작품에 대한 두 개의 번역을 비교해 보자.

The boys have gone to dig ginseng	사내애들 인삼 캐러 갔는데
While here beneath the shelter ,	여기 지붕 아래에는
The scattered chess and checker-men ,	흩어진 장기
Are lying helter skelter .	여기저기 놓여 있네
Full up with wine , I now recline ,	술을 잔뜩 마셔서 나는 이
	제 축 늘어지네
Intoxication, superfine!	대취하니 아주 좋다.
(<i>The Korea Bookman</i>)	

The lads have gone to dig for herbs and silent sits the hall within the bamboo grove	사내애들 약초 캐러 가 서, 죽정이 조용하네
The scattered pieces, chess and checkers, who will gather up?	흩어진 장기 누가 모으나?
Drink as a lord I lie	주인인 나는 취한 채 누워 있는데
Let time go bang (『일지』 7권)	시간이 흐르네

아희는 약 키라 가고 죽정은 횡덩그러이 부엌는데
 훗터진 바둑 장기를 어니 아희가 스러 답아 주리
 술 취고 송정에 누어스니 절 가는 줄. (『남태』 #3)

*The Korea Bookman*에 소개된 『남태』 3번 작품의 번역은 *The*

Korean Repository 1898년 12월호에 “Free-will”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1차 번역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³³⁾ 초, 중, 종장을 각 2행으로 번역하여 6행시의 형태를 취했고, 약강 4보격(iambic tetrameter)에 맞춰 단어를 배열하였으며, 각운도 맞추어서 영시의 운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번역시의 경우 시조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지만, 영시로서의 특성을 갖추느라 원문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고, ‘helter-skelter’와 같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게일 자신도 이 번역시를 소개하면서 ‘의역(free translation)’이라고 하였다.³⁴⁾ 영시로서의 형식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2차 번역서에 들어 있지만, 1차 번역의 특성인 수용문학 중심적 접근 태도를 보이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지』는 이 작품을 새롭게 번역하였다. 초장을 1행, 중장을 2행, 종장을 3행과 4행으로 나눈 4행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원문의 내용을 상당히 충실하게 옮겼다. 원문의 ‘약’을 *The Korea Bookman*에서는 ‘ginseng(인삼)’으로 번역하였지만, 『일지』는 ‘herb(약초)’로 번역하였다.³⁵⁾ 『일지』의 번역이 맥락상 더 자연스럽게 원문의 의미와 가깝다. 1차 번역에서 ‘인삼’으로 번역한 것은 3행의 ‘Checker-men’과 각운을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죽정’에 대한 번역도 『일지』가 더 원문에 가깝다.

33) 두 번역은 문장 부호의 사용 등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1차 번역에서는 제목이 있었고, 2차 번역에서는 그 제목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1차 번역은 1행이 ginsen’으로 표기되어 3행의 men과 각운을 이루었는데, 2차 번역에서는 ginseng으로 표기한 것, 그리고 1차 번역은 6행을 들여쓰지 않았는데 2차 번역은 들여썼다는 것이다.

34) 나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의미만 전달하는 짧은 번역, 의역을 소개할 것이다. (I give a free translation short and sweet)

35) 원문의 ‘약’을 ‘약초’의 줄임말로 여기고 ‘herb’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6) ginseng의 표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The Korean Repository*(1898.12)에서는

*The Korea Bookman*에서 ‘shelter’로 한 데 비해 『일지』는 ‘the hall within the bamboo grove’라고 하여 ‘죽정(竹亭)’의 의미도 살리고, 중장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행에 시조 각 행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담으려다 보니 1행과 2행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지』의 번역은 4행시의 형태지만, 영시의 운을 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작품(『남태』 3번)에 대한 번역을 비교한 결과, *The Korea Bookman*은 수용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일지』는 원천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일의 번역이 수용문학 중심적 태도에서 원천문학 중심적 태도로 변화해 간 점을 고려할 때, 수용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The Korea Bookman*이 『일지』보다 이전 시기 번역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Korea Bookman*에 투고한 글은 『남훈태평가』라는 가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가집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시도하였지만, 1차 번역이 존재 하던 작품은 다시 가져와 재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지』보다 *The Korea Bookman*이 먼저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양상은 3번 작품 하나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The Korea Bookman*은 『남훈태평가』의 1번부터 4번까지를 번역한 후, 5편의 작품(12번, 61번, 30번, 25번, 68번)을 소개하였는데 이 5편은 모두 1차 번역에서 발표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이 중, 12번, 25번, 30번의 경우 『일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세 작품에 대한 번역의 양상이 앞선 살핀 4번

ginsen’이라고 하여 마지막의 ‘g’를 생략하였다. 이렇게 하여 3행의 ‘checker-men’과 같이 ‘-en’으로 끝나며 각운을 맞췄다. *The Korea Bookman*에서는 이를 ‘ginseng’으로 수정하였다.

작품과 유사하다. 즉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세 작품은 모두 6행시의 형태로 규칙적인 미터와 각운을 느낄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다. 반면 『일지』에 수록된 번역은 3행시와 4행시의 형태이며, 영시의 운문성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지』에 비해 *The Korea Bookman*이 상대적으로 1차 번역에 견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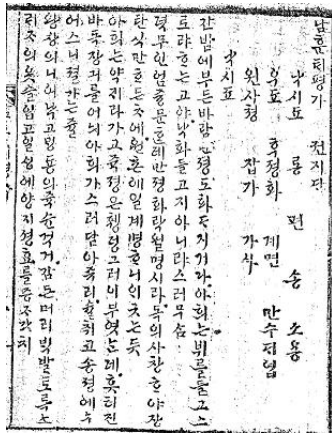
게일은 *The Korea Bookman*에 재수록한 1차 번역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대강 번역한 시(rude verse)³⁷⁾’라고 지칭하였다.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미터와 각운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공들여 번역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rude³⁸⁾’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The Korea Bookman*에 발표한 글 “Korean Songs”의 취지는 『남훈태평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이 번역시는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이 이러한 ‘rude verse’를 삽입한 것을 보면, 아직 『일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게일이 *The Korea Bookman*을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것은 『일지』가 아니라 『조선필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9수 중 6수(『남훈태평가』 2번, 3번 /12번, 61번, 30번, 25번)가 『조선필경』에 수록된 작품과 겹치는데 이 중 한 작품(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번역의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특히 *The Korea*

37) These songs have to do with a great variety of subjects. Here are a few samples done into **rude verse** many years ago, that I think never have been published.(이 노래들은 매우 다양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러 해 전에 대강 번역한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38) 이때 ‘rude’는 ‘대충 만든, 미완성의 상태: being in a rough or unfinished state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ude>)’라는 의미로 보인다.

Bookman에 수록된 후반부의 작품 수록 순서를 볼 때 『조선필경』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선필경』의 경우 그 주제에 따라 8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작품은 12번, 39번, 2번, 8번, 21번, 61번, 30번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The Korea Bookman은 이 중에서 12번, 61번, 30번에 해당하는 세 작품을 뽑아서 그 순서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에서는 가집의 수록 순서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나열했지만, 뒤에서 가집의 수록 번호와 순서가 뒤바뀐 것은 바로 The Korea Bookman이 『일지』가 아닌 『조선필경』에서 기존 번역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그가 후반부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러 해 전에 대강 번역한 것”³⁹⁾이란 바로 『조선필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남훈태평가』



The Korea Bookman

39) These songs have to do with a great variety of subjects. Here are a few samples done into **rude verse** many years ago, that I think never have been published

『일지』와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번역시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려해 보아도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The Korea Bookman*에서 소개된 영역 시조 9편은 모두 평시조를 번역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번역은 3행시(3편), 4행시(1편), 6행시(5편)로 나타난다. 번역시의 행수가 다양하여 번역에 있어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정형시로서의 시조의 특성을 감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6행시가 3행시보다 더 많다. 이 또한 *The Korea Bookman*에 발표한 글 “Korean Songs”의 취지와도 잘 맞지 않는다. 그는 영문 기사에 한글로 된 시조의 원문까지 수록하였는데, 『남훈태평기』에는 줄글 형태로 있는 것을 계일이 3행시로 정돈하여 번역시 앞에 제시하였다. 영어권 독자들이 한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3행시로서의 시조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계일은 여기에서 3행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이며 강조했지만, 정작 시조의 형식을 재현한 3행의 번역시는 3편에 불과하다. 즉, 이 글의 작성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에 인용된 번역시는 일관성도 부족하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지』의 경우 영역된 시조가 42수나 되지만 3행시와 4행시가 대부분이다.⁴⁰⁾ 그 외, 5행시(1편), 6행시(5편), 10행시(1편)도 있지만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⁴¹⁾ 즉, 『일지』와 *The Korea Bookman*에 보이는 전반적인 번역시의 양상을 비교하면 『일지』가 좀 더 일관된 형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계일은 *The Korea Bookman*에서 시조의 가치를 역설하며 시조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충실하게 옮긴 3행시 번역을 선보였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번역을 더 많이 소개하여 본 기사의 내용과 어긋나는 한계를

40) 3행시가 21편, 4행시가 14편으로 전체 80%를 넘게 차지한다. 대체로 평시조는 3행이나 4행으로 번역하였다.

41) 번역시의 행수가 길어진 것은 원문이 사설시조이거나 기존의 번역을 가져온 것이다.

보였다. 반면, 『일지』는 대체로 3행시, 4행시의 일관된 번역 형태를 취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The Korea Bookman*에는 영역 시조가 9수만 수록되어 있고, 『일지』에는 42수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미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The Korea Bookman*과 『일지』는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라는 원천문학을 중심에 두고 번역했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The Korea Bookman*이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지』는 *The Korea Bookman*에서 언급했던 『남훈태평가』의 자료적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번역 대상을 확장하고, 형식적으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토론토 대학의 ‘토마스 피셔 희귀본 장서실’에서 발견된 『조선필경』과 『일지』에 수록된 게일의 미출판 영역 시조의 특성을 논하고 그 작성 시기를 추론하였다. 이에 출판물을 중심으로 작성된 게일의 영역 시조사 속에서 미출판 영역 시조를 자리매김함으로써 게일 영역 시조사를 보완하고자 한다.

출판된 영역 시조의 경우, 발표 시기에 따라 번역의 양상이나 목적이 달라졌다. 1895년부터 1898년 사이에 발표된 1차 번역(*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Sketches*)에서는 수용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였고, 1922년에 발표된 2차 번역(*The Korea Bookman*)에서는 원천문학 중심적 태도로 바뀌었고,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발표된 3차 번역(*The Korea Mission Field*)에서는 중간 혼합적 태도를 보였다.

1912년에 작성되었으나 출판되지 못한 『조선필경』은 시기적으로 불

때는 2차 번역에 가까울 만큼 1차 번역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번역의 양상이나 시조에 대한 인식 태도로 볼 때 1차 번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필경』은 계일의 1차 번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차 번역에는 영문 잡지, 출판된 단행본, 미출판 단행본 등 영역 시조를 수록한 매체의 성격이 다양하고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도 상당히 길지만, 원천 문학인 시조로서의 특성보다는 영시로서의 운율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특히, 『조선필경』의 발견으로 인해 1910년대 초반까지도 계일이 서구 문학 중심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The Korea Bookman*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번역은 원천 문학 중심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두 번역 사이에는 변별되는 지점도 있었다. 이 변별되는 것들을 통해, *The Korea Bookman*이 『일지』보다 먼저 작성되었으며, 『일지』는 *The Korea Bookman*의 실험적 번역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일지』의 발견으로 계일이 *The Korea Bookman*에서 강조했던 바, 시조로 대표된 조선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서구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확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일의 출판된 영역 시조를 통해 20세기 후반에서야 한국 문학이 영역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시각을 부정하고 영역 시조의 역사를 100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⁴²⁾ 그리고 미출판 영역 시조를 통해 그간 알려진 것보다

42) 브루스 플턴은 한국 문학 영역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때, 1980년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가 되어야 영어권 독자들에게 최소 정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하였다.(유중호 외 27인, 『한국현대문학50년』, 민음사, 1995, 502쪽). 같은 맥락에서, 이유식은 한국 문학의 해외번역이 시작된 제1기를 1980년대로 잡았다.(이유식, 『한국문학 영어권 번역 소개 연구』, 『번역학 연구』

20세기 초반 영역 시조의 자산이 더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게일이 1차 번역과 2차 번역을 수행하던 당시에 그가 시조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이해한 것을 번역시로 표현하기 위해 언제 어떠한 시도를 했었는지 그 궤적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게일의 미출판 영역 시조는 게일 고시조 영역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또 다른 미출판 영역 시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⁴³⁾과 함께 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창간호, 한국번역학회, 2000, 196쪽) 즉 1980년대 이전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 43) 1911년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던 호주 선교사 Jessie McLaren(1883-1968)이 기생이 쓴 작품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McLaren, a missionary wife and the teacher at Ewha Girl's School whom my mother had met in her first week in Seoul, decided to turn over to my mother a large collection she had made of literal translations of songs by Ki-sang girls. (Faith G. Norris, *Dreamer In Five Lands*, Drift Creek Press, Oregon, 1993, p.149.)

참고문헌

- 『남훈태평가』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Bookman
The Korean Mission Field
Pen-Pictured of Old Korea (in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Diary #7, #21 (in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강혜정,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1~263쪽.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1~308쪽.
- 유종호 외 27인, 『한국현대문학50년』, 민음사, 1995, 1~717쪽.
- 이상현·이진숙, 「『조선필경』(Pen-picture of Old Korea(1912) 소재 게일(J.S.Gale) 영역시조의 창작 연원과 ‘내지인의 관점’」,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221~258쪽.
- 이상현·윤설희·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631~666쪽.
- 이상현·윤설희·이진숙, 「시가어의 재편과정과 번역-게일의 미간행 영역시조와 시조 담론의 계보학」,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57~615쪽.
- 이유식, 『한국문학 영어권 번역 소개 연구』, 『번역학 연구』 창간호, 한국번역학회, 2000, 169~202쪽.
- Faith G. Norris, *Dreamer In Five Lands*, Drift Creek Press, Oregon, 1993, 1~250.

ABSTRACT

Historical Significance of Gale's Unpublished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al Sijo(時調)

Kang, Hye-jung

This work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James Scarth Gale(1863-1937)'s unpublished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al Sijo(時調). In the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belonging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lies unpublished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s; part of this collection is a typed unpublished book called *Pen-Pictures of Old Korea*(『朝鮮筆景』) and a manuscript called *The Diary*(『日誌』) which contains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al Sijo.

During Gale's 40 year stay in Korea, he devoted 30 of those years to translating Sijo. Previous research shows Gale's translations differ in demeanor and purpose by publication period. Specifically, the first series of translations, those published in *The Korean Repository* between 1895 to 1898, was translated with the English audience in mind.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series of translations, those published in *The Korea Bookman* in 1922, strives to highlight the literary qualities of the source. The last series of translations, published between 1924 and 1927 in *The Korean Mission Field* amalgamate qualities of the previous two in attempt to please a broader audience.

The Pen-Pictures of Old Korea, which was set to be published in 1912 but remains unpublished, shows similar qualities to that of Gale's first series of translations. Although the first series of translations encompasses a large and diverse array of media, judging by time and its attributes, *The Pen-Pictures of Old Korea* can effectively be categorized into his first series of translations. Assuming such, we arrive at the notion that Gale translated as a service to Western literature until the early

1910s.

Regarding *The Diary*(『日誌』), previous research has unveiled its publication period a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 Bookman*, the second series of translations. The two works are similar in its originalist motivations, but there also exist points of distinctions. Considering these qualities, we can assume that *The Korea Bookman* was written prior to *The Diary*, and *The Diary* was written to supplement and expand the subject *The Korea Bookman* was based off of.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Diary*, as Gale emphasized in *The Korea Bookman*, we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Gale paid respects to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ntinuously attempted to publicize such to the Western society.

Key Words James S. Gale, English translation, Sijo,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Bookman, The Korean Mission Field, Pen-Pictures of Old Korea, The Diary

논문투고일: 2022.07.20. 심사완료일: 2022.08.06. 게재확정일: 2022.08.08.
--